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결	서 무	간 사	의 장
재			

제7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 시	2017. 04. 25(화) 10: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인원	의장 이창현, 부의장 윤정국, 김동훈, 한화택, 안승권, 김춘형, 박성호 이태준, 전수빈, 노경조		
업무지원	간사 이승구, 서무 이해경		
불참의원	김영숙		
발표자	총무처장 이호선, 신승철 재무팀장, 정정현		
안 건	1. 2016학년도 결산(안) 자문 2. 기타 토의 사항		

◎ 회의내용

- 이승구 간사 :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오늘의 안건은 2016학년도 결산(안) 자문임을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개회를 선언함.

[안건 1. 학생평의원 자격 관련 논의]

- 이승구 간사 : 학생평의원 자격에 관한 법률상담센터 자문 결과, 휴학 중인 총학생회장은 학생평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자문하였음을 발표함

[안건 2. 2016학년도 결산(안) 자문]

- 이호선 총무처장 : 2016학년도 결산(안) 자료를 설명함
- 윤정국 부의장 : 발전기금 관련 자료를 미리 요청하여 받았는데 자료의 내용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표2에 발전기금이 포함된 것인지, 미리 받은 자료와 결산 자료의 발전기금이 19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은행의 20억 원이 포함된 것인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결산 자료의 액수는 재무팀의 수입으로 잡힌 계수상의 액수이며 별도의 발전기금 통장은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부금 내역이 반영 안 되었을 수 있어 홍보팀에 문의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함
- 전수빈 의원 : 수강료 수입은 평생교육원과 제로원디자인센터의 수강료 수입인지 묻고, 본예산 대비 결산에서 수입이 37억 원 줄었는데 올해 예산도 작년과 비슷한 150여 억 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지출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는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중국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드 및 K-POP 등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감소되어 예산과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답변함
- 전수빈 의원 : 법인전입금 중 2015년도에는 있던 경상비전입금이 2016년에는 없어졌고 2017년 예산에도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신승철 재무팀장 : 법인전입금이 약 42억 원이며 법정부담전입금 부담액은 41억 원이었으나 전입금 전액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경상비전입금이 무엇인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등이 있고 경상비전입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함
- 전수빈 의원 : 학교의 등본을 떼어보니 건물 등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 법인에서 자산전입금을 내야하며 학교 운영에 법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이호선 총무처장 : 예전부터 학생들이 고려보건대 건물을 매입하면 법인 것이 되는데 법인에서 매입가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학교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것은 학교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학교 법인의 전입금 상황은 다른 학교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함

▪ 신승철 재무팀장 : 총장 이름으로 건물을 구매할 수는 없으며 자산전입금은 법인에서 내야하는 돈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에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함

▪ 한화택 의원 : 사업예산 실험실습비와 등록금회계 실험실습비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묻고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상대적으로 실험실습비 등이 여유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학과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학생등록금으로 배분되는 실험실습비는 모든 학과에 동일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발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등록금회계 실험실습비와 그 외 예산의 실험실습비는 구분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자금 역시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가능한 모든 단과대학을 사업에 참여시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예전에 비해 커졌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원 : 등록금회계 실험실습비와 비등록금회계 실험실습비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 김춘형 의원 : 고정자산매입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묻고 산단전입금의 지불 주체는 누구인지, 표4에 나오는 기자재는 소모성비품을 의미하는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도서나 기계기구 등 자산화가 될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단전입금은 산단에서 생기는 이윤을 학교로 전출한 금액이고 표4의 기자재는 모두가 소모성물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구입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함

▪ 전수빈 의원 : 2017년도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수입 부분에 은평구 사업 3억 5천만 원에 대해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2017년 예산이므로 입금이 되면 반영될 예산인데 국고 수입이 될 것이며 그 부분은 예산평가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재무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2016학년도 결산(안) 자문회의에는 예산조정팀장이 배석을 했으며 예산 관련 질문을 하면 재무팀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차후에는 예산평가팀장이 회의 자리에 배석해주기를 요청함.

작년에 70주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홍보 및 행사비의 지출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지출된 것인지 추가 설명을 요청함

▪ 신승철 재무팀장 : 홍보행사비는 약 8,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광고비가 많이 줄어 전체 홍보 및 행사비는 감소되었다고 설명함

▪ 박성호 의원 : 전체 등록금 중 많은 부분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과대학별 혹은 단위 소속별로 자체 수익 대비 인원 배치와 지출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평의원들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결산 회의에 예산평가팀 및 전략기획팀이 배석해야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재무팀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제대로 지출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고 예산의 절약 역시 예산평가팀에서 하는 것이므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유관부서 관련자가 모두 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그래야 실질적인 자문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 전수빈 의원 : 입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을 보면 300만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이에 따른 설명을 요구함

▪ 신승철 재무팀장 : 입시수수료는 잔액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특수대학원이 3월 말까지 등록을 받기 때문에 확정된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환불하지 못하였으며 파악되는 대로 환불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등록금수입도 변동이 없고 수강료수입도 줄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운영비를 줄여 해마다 60억 원의 이월금을 남기는 건전 재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0명의 학생정원이 줄어들 경우 등록금 감소의 추이가 어떤지 알고 싶고 다른 대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난 5년간 우리 학교의 인건비 절감 및 연구비 감소에 따른 운영 상황은 어떠한지 자료를 요청함

▪ 신승철 재무팀장 : 타 대학의 결산자료는 5월말 결산이 공시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이창현 의장 : 교수 안식년 보수 환급금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전에 환급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직원과 교수의 퇴직금 수령액은 차이가 있는지 질문함

▪ 이승구 간사 : 우리 학교는 교수가 연구년을 다녀온 후 3년 이내에 이직을 하면 보수를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권여현 교수가 이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았다고 말하고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 신승철 재무팀장 : 퇴직금 지급은 교원과 직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 2년마다 퇴직하므로 퇴직금 집행액이 크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고임금의 교수가 퇴직을 할 경우 신입교원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지 묻고 교수들의 명예퇴직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윤정국 부의장 : 교수나 직원 모두 퇴직금액은 같다고 말하고 명예퇴직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바뀌었고 정년을 10년 남겼을 경우 5년간은 통상임금의 50%, 나머지 5년간은 25%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함

▪ 이호선 총무처장 : 명예퇴직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인력이 퇴직을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학교의 재정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직원과 교수의 사학연금 지급액은 같은지 질문함

▪ 윤정국 부의장 : 과거에는 액수가 달랐으나 현재는 교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없어서 동일하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학생관련 비용이 예산 대비 44억 원이 줄었다고 말하고 과도한 지출 통제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국가장학금이 회계연도 일정 대비 늦게 반영이 되고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액수에 못 미치게 배정이 되어 나온 결과라고 답변함
- 이창현 의장 : 등록금, 수강료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관리 운영비 등 지출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행정부서는 운영이 힘들다고 말하고 홍보비 등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학교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의 감소를 예상한 과도한 예산 통제로 인해 무리한 정책 계획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함.
- 전수빈 의원 : 노후된 건물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춥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고 시설 수리를 통해 보완해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함
- 안승권 의원 : 예산의 편성은 예산평가팀에서 하고 결산은 재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예결산 자문의 자리는 사업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사업을 계획한 부서인 기획처에서 예산 뿐 아니라 결산 자문에도 참여를 하여 결과물을 피드백 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한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기획적인 의미에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함
- 전수빈 의원 : 교육훈련비가 예산 대비 증가하여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못한 이유를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교수세미나가 구체적인 계획이 추경 이후 진행되었으며 현지의 물가 인상 및 참석인원 증가로 예산액을 초과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답변함
- 전수빈 의원 : 소모성경비가 증가되어 2015년 소모성경비 증가율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학생경비는 줄어 4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는 이월이 가능한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질의자료에 답변을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교와 우리 학교의 예산액 자체가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 소모성경비의 증가율은 큰 의미가 없으며 홍보비도 비율로 보자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함. 학생경비의 감소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지원금이 감액되어 예산 대비 집행액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매년 장학금은 증가하고 있

다고 부연 설명함

- 정정현 : 학생경비는 본부 부서의 통제로 인해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의 미집행으로 인해 남은 예산이며 비용성 계정은 계정과목을 지정하여 예산을 이월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김동훈 의원 : 외국인학생 등록금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이호선 총무처장 : 평생교육원 40억 원의 수입을 포함, 약 140여 억 원이 되며 이 수입은 고정 수입이 아니라 변동 수입이므로 2016학년도에는 60억 원을 적립하였지만 학교의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다음 년도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함
- 전수빈 의원 : 지난 1월에 투자유가증권 항목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여 받았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현재 결산서에는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신승철 재무팀장 :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정기에금으로 처리하여 투자유가증권 계정이 없었으나 그 이후 회계감사에서 만기일이 1년 이상이므로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도록 권고,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계정대체 처리하였다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작년 결산 자문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했었는데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자문회의 역시 추후에 피드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자문회의라고 발언함.  
이번 세무감사는 결산에 문제가 있어 하게 된 감사인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세무서의 정기 감사 차원이라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우이경전철역의 입찰을 위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해당하는 계정으로 지출을 했을 텐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 질문함
- 이호선 총무처장 : 지난 추경에서 약 3억 원을 잡았었고 9,5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이창현 의장 : 보국문역의 입찰에 우리 학교는 시도하지 않았는지 묻고 역의 가치

는 정릉역이 더 좋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보국문역이 더 가깝다고 발언함

▪ 이호선 총무처장 : 두 곳 모두 입찰을 시도했으며 거리상의 이유로 서경대가 정릉역의 국민대 낙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보국문역이 학교에서 더 가깝기는 하나, 정릉역이 유동인구도 많고 홍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로 오는 셔틀을 증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전철역 입찰은 3년마다 재입찰하는지 질문함

▪ 신승철 재무팀장 : 그렇다고 답변함

▪ 이창현 의장 :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적인 요청사항은 따로 전달 받아 평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결산 자문회의가 단순히 재무 달성의 논의라기보다는 국민대가 나아갈 방향과 기회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논의하여 상위적 개념의 제안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발언함.

국민대학교 평의원회의 운영예산과 타대학의 평의원회 운영예산을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 2016학년도 결산(안) 에 관하여,

첫째,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관리 운영비 등 지출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약과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과도한 예산 통제로 인해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고 학교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둘째, 실질적인 자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관부서 관련자가 모두 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단순한 재무 달성의 논의보다는 국민대가 나아갈 방향과 기회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논의하여 상위적 개념의 제안을 한다는 것에 의의와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자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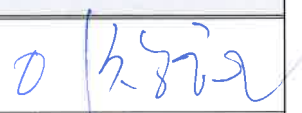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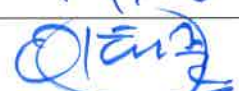
더 이상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붙임 : 제7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자료 1부.



## 제7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참석 확인

- 회의일자 : 2017. 4. 25(화) 10:00

구 분	이 름	확 인
의 장	이 창 현	
부의장	윤 정 국	
의 원	노 경 조	
의 원	김 동 훈	
의 원	김 영 숙	불참
의 원	한 화 택	
의 원	안 승 권	
의 원	김 춘 형	
의 원	박 성 호	
의 원	이 태 준	
의 원	전 수 빈	